Monthly Report
마이다스블루칩배당주식형투자회사

자산운용보고서
2007년 11월

Fund Facts
투자목적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중 고배당 종목을 위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 이익과 배당이익을 함께 추구하며, 커버드콜전략의 실행을 통한 콜옵션 매도 수입의 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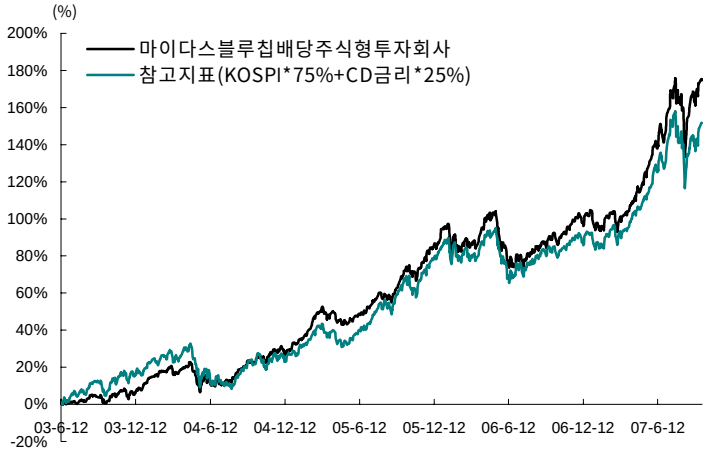
운용개시일: 2003.06.13
펀드규모: 1196.24억원(순자산 기준)
총보수: 선취판매수수료1%+신탁보수 1.21%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운용실적

구분	기준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블루칩배당주식형	2749.13	-6.94%	4.00%	15.19%	35.48%	174.91%
참고지표		-5.56%	1.71%	9.75%	26.11%	147.51%

수익률 추이

(2003.06.12~2007.11.30)



※이 펀드는 운용구조상 적절한 벤치마크를 정할 수 없으나 지수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종합주가지수 그래프와 펀드 주식편입비를 감안한 참고지표(종합주가지수 *75%+CD금리*25%)를 기재하였음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1월 한 달간 펀드는 -6.94%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동 기간 중 참고지표는 5.56% 하락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 동 기간 중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화학, 철강, 운수장비, 유통, 건설, 운수창고 등의 비중을 유지했던 것이 참고지표 대비 초과수익을 시현하지 못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주식시황]
11월 한달간 주식시장은, 최근 상승률이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큰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신용경색 위험이 재부각되고 투자은행들의 부동산투자 관련 상각 규모 확대에 따라 미국증시가 급락하였고, 중국증시도 조정국면으로 전환하는 등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철강, 운수장비, 유통, 건설, 운수창고, 은행, 증권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반면 제약, 전기전자, 통신, 유틸리티 업종 등은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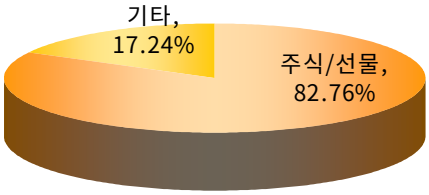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8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분의 80% 수준은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로 구성합니다.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종목 중 고배당 종목 위주로 구성됩니다. 주식 보유분의 나머지 20% 수준은 중소형 종목 중 엄선한 마이다스 고배당주로 구성됩니다.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중 SK텔레콤, KT, 한국가스공사, KT&G,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의 수익률이 양호하였습니다. 반면 CJ, 한화, SK, KCC, GS건설, 신한지주, 현대제철 등은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에서는 한화, CJ, LG 등을 순매수하였으며, LG전자우, 삼성물산, 삼성전자우 등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마이다스고배당주
마이다스 고배당주 부문에서는 크레듀, 무림페이퍼, 한국전자금융, 한솔제지 등의 수익률이 양호하였으며, 현진소재, LG상사, 한미반도체, 에스에프에이등의 수익률은 저조했습니다. 고배당주 부문에서는 CJ홈쇼핑, 크레듀, 현대H&S 등을 순매수하였으며, LG패션, 대한전선 등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277.5에 매도된 11월물 콜옵션은 옵션만기일 주가가 매도 콜옵션의 행사가격 이하로 형성되면서 일부 이익이 발생하며 종료되었으며, 12월물 콜옵션은 277.5에 매도하였습니다. 당 펀드는 주가하락위험을 일정부분 헤지하고 추가 수익을 얻고자 현물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은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시 펀드 수익률 상승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히 움직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상위보유종목

(순자산총액 비중 46.58%)

(1)POSCO
(2)한화
(3)삼성전자우
(4)한진중공업
(5)대한항공
(6)LG화학
(7)한국가스공사
(8)대신증권우
(9)대한전선
(10)GS건설
(11)KT
(12)STX조선
(13)KT&G
(14)SK에너지
(15)현대제철
(16)KCC
(17)LG상사
(18)동부화재
(19)LG전자우
(20)삼성엔지니어링